

◇다한증 환자에서의 T2 Sympathicotomy 의 효과

조현민, 이두연, 백효채, 윤용한, 이교준, 이응석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호흡기센터,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다한증은 젊은 나이에 0.6%에서 1%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흉강 내시경 기구의 발전으로 2 mm 내시경에 의한 다한증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수술 후 통증이나 상처에 대한 걱정 없이 수술을 시행할수 있게 되었고 또한 보상성 다한증등의 합병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수술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.

방법 :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7년 9월부터 1998년 2월까지 89례의 다한증 환자에서 2 mm 흉강경을 이용한 89례의 흉부교감 신경절 절단술[sympathicotomy]을 시행하였다

결과 : 모든 환자에서 추적 가능하였으며 평균 수술시간은 30분이었으며 평균입원기간은 1일이었다. 수술후 보상성 다한증은 57례[64.0%]에서 나타났으며 생활에 불편한 정도의 보상성 다한증은 14례[15.7%] 였다.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율은 일반적인 수술방법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다한증의 정도는 훨씬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. 수술의 만족도는 96.6%에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3.4%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.

결론 : 2 mm 흉강경을 이용한 T2 흉부교감 신경절 절단술[sympathicotomy]은 다한증의 치료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매우 간편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생각되어지며 신경의 재 성장에 의한 재발등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 추적관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.

책임저자:이두연(연세대학교) 발표자:조현민(연세대학교)